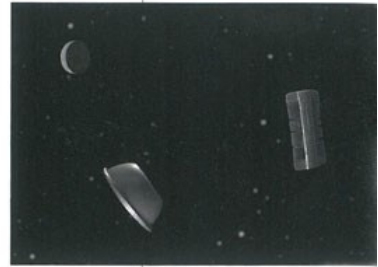


산 자를 위한, 죽은 이를 위로하는 씻김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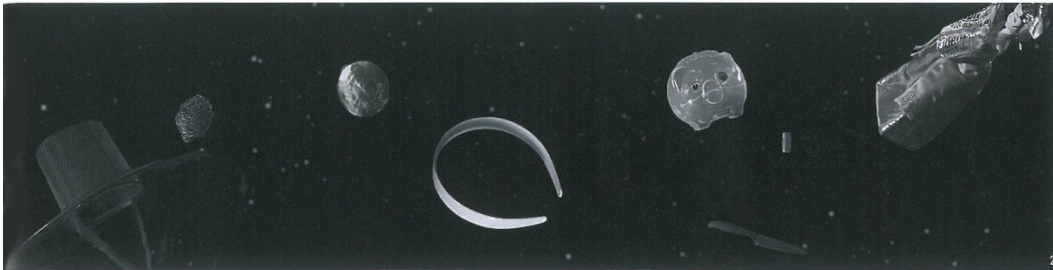
June 18, 2017 | 문소영 기자·코리아중앙데일리 문화부장

page 1 of 3



까르띠에 소장품전-국제갤러리 개인전 동시 진행 작가 박찬경

산 자를 위한, 죽은 이를 위로하는 씻김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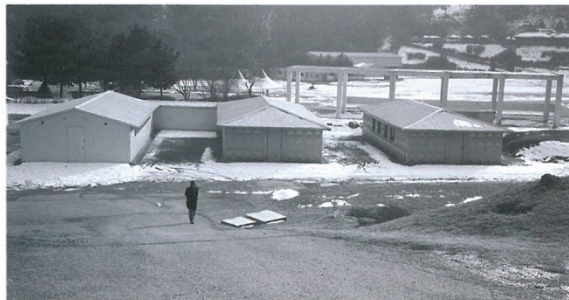
단청이 추상화처럼 칠해진 목판에 금빛 낫쇠 접시 같은 물체가 밤하늘 별자리처럼 박혀 있다. 이 기묘하게 아름다운 것들은 박찬경(52) 작가가 5년 만에 한국에서 진행 중인 개인전 ‘안녕 安寧 Farewell’(5월 25일-7월 2일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신작 ‘밝은 별’ 연작과 ‘칠성도’다. 그는 형인 영화감독 박찬욱과 함께 2011년 ‘파킹찬스(PARKing CHANce)’라는 이름으로 작가 듀오를 결성했는데, 자신들의 최초의 3D 영화 ‘격세지감’이 서울시립미술관(SeMA)에서 열리고 있는 카르띠에 재단 소장품전 ‘하이라이트’(5월 30일-8월 15일)에서 상영 중이다. 두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글 문소영 기자·코리아중앙데일리 문화부장 symoon@joongang.co.kr, 사진 국제갤러리

“접시 같은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박 작가는 “한국 무당들의 필수 무구(巫具)인 명두(明斗)”라고 설명했다. 무당은 누구나 명두를 한 개 이상 갖고 있으며, 신당에 걸거나 굿을 할 때 걸어놓는다. 거기에 신이 깃들고 그것을 통해 신과 소통한다는 것이다. 명두의 기원이 고대 제례에 쓰이던 청동거울이라는 학설도 있다.

“명두에는 해와 달, 복두칠성이 새겨져 있는데, 그 자체가 우주의 상징입니다. 현대인이 생각하는 과학적 개념의 우주, 측량하고 탐사할 수 있는 우주가 아니라, 옛 사람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던 아득한 먼 다른 세계로서의 우주 말입니다. 그 우주관에 흥미를 느껴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관객들의 반응이다. “명두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더욱 가까이 다가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뭔가 꺼림칙한 듯 뒤로 물러선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이 무속에 대해 갖는 양가적, 복합적 태도의 압축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그 태도는 역사적 산물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20세기에는 근대화에 역행하는 미신이라는 이유로, 정권은 무속을 냉대하고 때로는 탄압했다. 그럼에도 무속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삶에 끈질기게 밀착돼 있었고, 심지어 엘리트 계층에 속한 이들도 차츰 무속에 의지하곤 했다.”

그는 이렇게 무속과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을 여럿 창작했다. 계룡산 종교 취락에 대한 미디어 아트 ‘신도안’(2008)과 큰 무당 김금희의 삶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바라본 영화 ‘만신’(2014)이 대표적이다. 작가는 묻는다. 일제 식민지와 분단과 군사독재와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근대화된 한국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나고.



1 작가 박찬경
2 박찬경의 3채널 비디오 작품 '시민의 숲' (2016)의 한 장면
3 파킹찬스 중 박찬경 작가의 작 '격세지감'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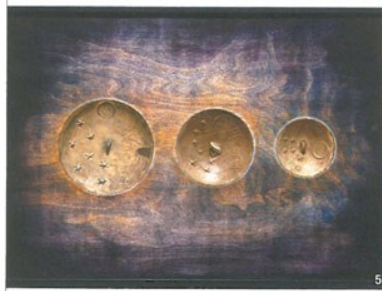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무속으로 탐구

이런 질문은 이번 개인전의 하이라이트인 ‘시민의 숲’에도 스며 있다. 3채널 비디오의 스펙터클한 화면에 26분 동안 흑백으로 펼쳐지는 이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섬세하게 만든 공포영화를 보는 것처럼 소름이 올라온다. 그리고는 처연해진다. 은유와 알레고리가 가득한 영상시로서 한국 근대사의 혼란 속에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을 애도하기 때문이다.

배경은 알 수 없는 산속. 그 안에 교복 입은 학생들, 해골 얼굴을 한 반라의 군인들, 휘파람을 부는 참수된 머리 등등이 출몰해 모였단 홀어지곤 한다. 그들은 1894년 동학농민봉기, 1950-53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작가가 “극복되지 못한 근대성의 한계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지목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 등 한국 근대사 속 비극적 사건들의 희생자들이다. 또 ‘권력의 상징’인 법복을 시대별로 입은 자들도 나오고, 한복 입은 여인도 등장한다.



4 박찬경의 '침성도 (왼쪽)와 '승거사 가는 길 (오른쪽)이 국제갤러리에 설치된 모습.
5 박찬경의 '밝은 빛 5'는 김상돈과 협업했다.



4 박찬경의 '침성도 (왼쪽)와 '승거사 가는 길 (오른쪽)이 국제갤러리에 설치된 모습.
5 박찬경의 '밝은 빛 5'는 김상돈과 협업했다.

4 박찬경의 '침성도 (왼쪽)와 '승거사 가는 길 (오른쪽)이 국제갤러리에 설치된 모습.
5 박찬경의 '밝은 빛 5'는 김상돈과 협업했다.

어인은 희생자들의 혼을 위로하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 하는 무덤일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의 숲'은 결국 찢김투 찢긴 판인 셈이다. 굵은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지만 산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가혹한 현실에 지친 민초들은 화려한 공연이자 오락이었던 곳을 보고 울고 웃으며 죽은 이들 못지않게 위로를 받았다. 관람객은 마치 곳을 보러온 마을 사람들처럼 이 찢김투에 동참해 각자의 카타르시스를 얻게 된다.

그런데 왜 제목이 '민중의 숲'이 아니라 서구적·근대적 냄새가 나는 '시민의 숲'일까. 그는 "제가 '양재 시민의 숲'에 관해 만든 작품 제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자의 동의를 구해 이 제목을 쓰게 됐다"며 "역설적인 제목이다. 이 작품에서 애도하는 사람들은 현대사에서 부당하게 시민권에서 배제된 사람이니까"라고 덧붙였다.

은빛 해골 가면의 군인들이 바지를 벗은 '하의실종' 상테인 이유 역시 궁금했다. "군사문화의, 그리고 남성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면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바지가 없어서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고 한마디로 '없어 보이죠.' 이런 모순된 효과를 의도했어요. 위협적이면서도 애잔한."

이 작품은 2016년 타이페이 비엔날레에서 처음 선보여 한국처럼 식민지 치하와 복잡하게 뒤얽힌 근대화를 거친 대만인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다. 18일 폐막하는 미술장터 아트 바젤의 위성페어 '언리미티드(Unlimited)'에서 전시 중이기도 하다.

"토착 종교에 관심을 갖고 '신도안'을 찍게 된 것은 한국적 '숭고'의 미학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일종의 '숭고'를 찾긴 찾았는데, 그와 관련된 '산악 숭배' 같은 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보편적인 것이었어요. 대신 나는 한국 무속의 독특하고 놀라운 점을 찾았습니다. '뫼전'이라 해서 온갖 이를 없는 잡귀신, 별 불일 없는 소외된 귀신들까지 모두 불러다 대접해 주더라고요. 이런 정말 무속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속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의 무속이 엄밀한 내세관이 없으며 죽은 자보다 산 자의 현재 극복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무속에서 현재와 극복을 중시하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든 극복적 측면이 있어요. 우아하게 바꾸니에 헌금을 담으면서 축복을 바라느냐, 우악스럽게 돼지 머리에 돈을 뿜으면서 복을 비느냐 하는 양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무속은 이기적인 욕망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뫼전'에서 이를 없는 소외된 잡귀까지 보살피듯, 산 자와 죽은 자를 아우르며 모든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죠. 굵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였어요."

영화 세트장 소재로 3D 영화 만들어 까르띠에 소장전 상영

1990년대 미술비평가로 먼저 이름을 알린 박 작가는 1997년 금호미술관의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으로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형인 유명 영화감독 박찬욱과 공동 연출한 '파란만장'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 최우수 황금곰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까르띠에 제단 소장품전 '하이라이트'에 형과 함께 만든 3D 영화 '적세 지감'을 내놨다. 박찬욱 감독의 2000년 작 '공동경비구역 JSA'를 만들기 위해 판문점을 재현했던 경기도 남양주 세트장을 배경으로 했다.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후 한 때 많은 관객을 모았던 이 세트장은 지금은 세월과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 폐허가 되어 있다. '세월의 영육을 감싸 안고 이제 사라져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을 3D 영상과 몰입형 음향으로 재현함으로써 그 아이러니컬한 모습과 현실과의 간극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폐허가 된 세트장 또한 하나의 버려진 영혼이며 굴곡진 한국 현대정치사의 산물일 터다. 박찬경 작가의 일관된 관심사에 참 잘 맞는 작품이 아닐 수 없다. ●